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매사추세츠 추가주거공간(ADU) 허용 임박, 알아둬야 할 것들

주지사 법 제안해 하원 통과, 상원 통과하면 허용될 듯
단독주택에 900스퀘어피트 주거공간 변경 허가없이 건축
저렴한 렌트 늘어 렌트비 낮아져, 집주인은 추가 수익 확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소위 ‘뒷채’라 할 수 있는 추가주거공간(ADU) 건축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주택구조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사가 제안한 46억달러 채권 발행법 (Bond Bill), 어포터블홈스액트(Affordable Homes Act)에 포함된 ADU는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주지사의 제안을 하원이 6월 5일 일단 허용함으로써 상원에게 송부된다. 주 거에 보수적인 매사추세츠에서는 비록 논란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상원에서도 특별한 반대가 없는 상황이다.

ADU로 알려진 추가주거공간(accessory dwelling units)은 논란이 많은 만큼 매사추세츠 대부분의 타운이 보유한 단독가구주택(Single Family) zoning 규정 하에서 가장 빠르게 많은 추가 주택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주지사가 제안한 ADU법은 단독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추가 변경(variances)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900스퀘어피트 이하 규모의 주거공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도 일부 타운에서는 ADU를 다양한 방법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은 주 차원의 일괄적인 표준 규정을 적용해 최소 주 ▶▶7면으로 계속





THE PRO 수잔리 부동산
REALTY GROUP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설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확실한 옵션,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통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더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illion Dollar Club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Accredited Buyer's Representative

Senior Real Estate Specialist

Certified Residential Specialist

TR Designated Broker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미술관, 한국관련 진솔한 대화에 강연장 꼭 채운 관심

보스톤미술관 미술관 한류 시리즈 시티토크 성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미술관(MFA)이 5월 30일 한류 시리즈 중의 하나로 개최한 시티토크(City talk) 좌담회에 많은 보스톤 거주 미국인들이 참여 큰 관심을 보였다. 에드워드 린든 갤러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의 준비된 좌석은 모두 찢어찢고 서 있는 청중들을 위해 더 많은 의자를 가져와야 할 정도였다.

'한국의 표준과 치부 (Korean Standards and Stigmas)'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부정적인 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했다.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룬 한국은 전 세계를 매혹시킨 화려한 케이팝 문화, 한류의 나리임과 동시에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양면성이 어디에 기인하였는지, 또한 이런 역설적인 모습들이 한국인들과 코리안어메리칸들의 정신 건강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열린 토

론이 이어졌다.

특히 팬데믹 이후 미국 사회에 팽배했던 아시안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이슈와 그것들이 코리안어메리칸들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미국 내 한인들의 자살률은 2011년 10만 명당 10.3명에서 2022년 15.7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이 이날 패널들에 의해 언급됐다.

좌담회 진행을 맡은 함혜옥 BU교수와 패널리스트로 참가한 조세핀 김 하버드 교육학 교수, 글로리아 영성 리(작가), 그리고 준 손(김치파피 대표)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경험들과 통찰력 있는 분석을 통해 이 문제의 뿌리와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청중들과 함께 고민했다.

특히 한국적인 표준 (Korean Standards)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그 표준이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꺾어놓게 만드는지, 또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관계와 이민 1세대 부모들의 기대치가



5월 30일 열린 MFA 시티토크 좌담회 모습 사진 좌로부터 함혜옥 교수, 조세핀 김 교수, 글로리아 양성 리 작가, 그리고 준 손 김치파피 대표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류라는 큰 물결이 앞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 틀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와 방안들이 다루어졌다.

조세핀 김 교수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박스에 갇혀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인 안에 여러 가지 다양성을 용납하고 받아 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리아 리 작가는 사회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그러진

기대치에 귀 기울이지 말고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을 것을 조언했다. 준 손대표는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아는 것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 참석자는 “한류 좌담회를 통해 보스턴 지역사회 전체와 더 나아가 미국 전역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들과 실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평통 정기회의, 열띤 토론과 다양한 활약상 나눠

한순용 위원 통일에 대한 도전과 극복방안 설명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황규영
위원,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 보스턴협의회(회장 한문
수)가 2024년 2분기 정기 회의를 6
월 2일에 개최하여 통일에 대한
열띤 토론과 함께 자문위원들의
활약상을 공유하였다. 이날 회의
는 한수용 자문위원의 진행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도
전과 극복방안” 주제로 열렸다.

한 위원은 주제와 관련된 설명과 함께 자신의 2008년 개성 방문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북한 인권 실태를 설명하며 많은 위원들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북한인권과 통일에 대한 인식제고 및 해외 자문위원들의 구체적 활동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행사에 앞선 축사에서 홍순복 부총영사는 메모리얼데이에 우스터시에서 ▶▶3면으로 계속



서울설렁탕
SEOUL SEOLLE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k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정비, 퀄리티 결장방독,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올랐던 상담·예약·결장전담·의료관광을 보조지 및한로서 드려드립니다.'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1. 이학력검사(심폐측정, 비탄도, 시력, 입압, 혈압) 2. 흉부검사 (순환성질환 검사) 3.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롤 수치 70여가지) 4. 암표지자검사 5. 심폐기능검사(흉부X-RAY, EKG, 노박실피촬영) 6. 요검사	7. 두뇌영상사 8. 방인과정사(자율신경계, 추방수술형) 9. 소화기검사(수면 위내시경) 10. 복부초음파검사(간장, 췌장, 복부장기관) 11. 보건 및 전염병의 상임
--	---

(유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오전 4시간 **45만원 ~**

-대검역 - [심] 순환기계, 신장신장계, 골밀도, 비탄도, 시력
-대검역 - [혈] 간기능시험, 수당치험, 동맥경화 측정, 약제DPO

(유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출회 **65만원 ~**

-숙박 당일출발검진 + 수면 진단검사 + 숙적(1건)

(유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출회 **120만원 ~**

-숙박 숙박출발검진 + SARA, BCT

(유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출회 **240만원 ~**

-숙박 정밀숙박출발검진 + SARA, 유망치험, 복부초음파, 흉부(CAT), 1일전통적, 전통적으로, 예약후는(나름특별한 가능)

(유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2일간 진행(보건 검사 포함) **437만원 ~**

-숙박 VIP출발검진 + CAT(CT)전상합검진, 복부초음파, 골밀도, 약제, 사립병원출발검진 + 2일간 특등(나름특별한 가능)

※ 출국을 통한 여행사 세라부터 객실개 해와정을 필요로 할 있습니다.
또 한가 검진은 현지에 국외 검안 협회 및 세운 곳 서너소리이 감히 합니다.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현장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충청대학교병원(홍익역)

서울무민병원(가양역)

연산화도병원(삼봉역)

H+엘지병원(선릉역)

세강병원(북촌문역)



하람의료사업팀 담당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채널 : 010-3499-4040(D: hsuram@naver.com)
 이메일 : hsuram@hsuram.kr
 홈페이지 : www.hsuramkr.co.kr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 5월 19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24년 보스톤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가 5월 19일 일요일, 그라프트 (Grafton)고등학교에서 400여명의 선수와 500여명의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주보스톤 대한민국총영사관 그리고 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MSTA)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 되었

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열린 경기를 펼쳤다.

김재휘 총영사와 정제형 태권도 협회장은 "태권도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 장영수 한인회 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이 대통령 자원 봉사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는 WYE ME 암 센터에 \$2000불을 기부하기도 했다.



▶▶2면에 이어서

진행된 행사에서 2년 전에는 한국 전 참전용사가 10명이었으나, 올해는 한 명도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통일부에 북한 이산가족 신청자는 13만 3천여 명이지만, 생존자는 4만 명이 채 안 된다고 언급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시간의 시급함과 보스톤 협의회와 통일 관련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주류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보스톤자문위원들의 활약상이 조명되었다. 보스톤 대학 교수인 함해욱 자문위원은 5월 31일에 보스톤미술관에서 진행했던 미국 거주 한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강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유현경 자문위원은 지난 5월에 최초로 개최되었던 글로벌 전략 특위 워크숍 참여후기를 공유하였다. 최근 출범한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에는 유현경 위원을 비롯한 김영환, 박상원, 조미나 위원이 임명되었다. 황규령 자문위원은 전체 미주지역회의 (20개 협의회)의 '미주 교육분과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임명장을 받았다.

보스톤 협의회는 6월 9일 통일골든벨(정문철 준비위원장), 15일 미주 부의장배 골프대회(홍진섭 준비위원장), 그리고 22일 6.25 참전용사 묘비 국기달기(박찬모 준비위원장) 행사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명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정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hoe City Family Den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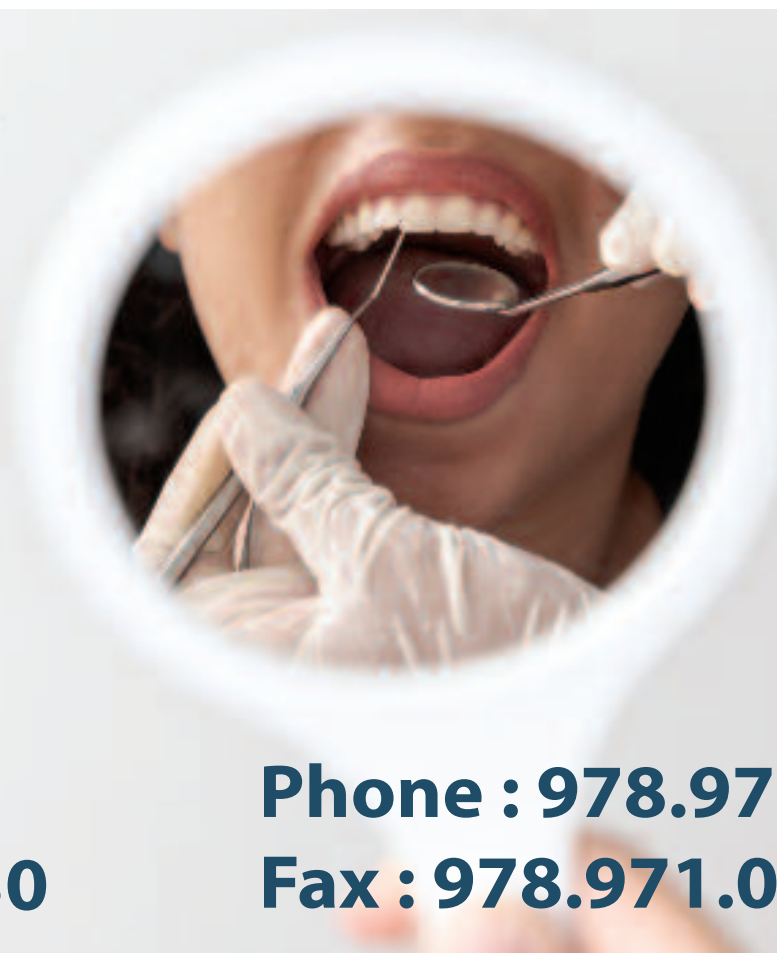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하버드도 교수 채용시 다양성, 평등 조항 삭제

다양성 진술서의 의무화가 학문의 자유 가치에 위배 지적
다양성 진술서 보수적 성향의 교수진엔 곤욕, 채용 막아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MIT에 이어 하버드도 채용시 다양성 진술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하버드는 교수직을 지원하는 후보자들은 어떻게 다양성, 포용, 평등(DEI)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에세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했었다.

하버드대는 약 5년 전 미국 대학에서 유행처럼 번지던 DEI 경향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3일 하버드대학내 가장 큰 규모의 인문과학대(Faculty of Arts and Sciences, FAS)는 많은 교수진으로부터 의무적인 에세이 채택에 우려를 표시하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교수 채용시 일상적인 제출 서류 중의 하나였던 다양성 진술서는 최근 들어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DEI는 교수 채용에 있어서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의도의 제도였으나 이것이 때로 학문적 가치의 핵심과 충돌하면서 반발을 사게 된 것이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다

양성 서류의 의무적 채택을 성토했고 MIT의 이 같은 DEI 서류 의무화 폐지 움직임에 찬사를 보냈다.

하버드는 MIT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이어 의무적인 다양성 진술서 의무화를 해지하면서 이같은 다양성 탈피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대 다른 대학 교수그룹에서도 다양성 진술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나니 지프스 교원처장은 향후 정교수 지원자들은 기존의 DEI 진술서 대신에 좀더 광범위한 서비스 진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DEI 정책의 일부가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기치로 걸고 있는 대학의 핵심가치와 충돌한다는 측면에서의 무화를 폐지한다는 결정은 인정하지만 보수강경론자들의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억압에 순응한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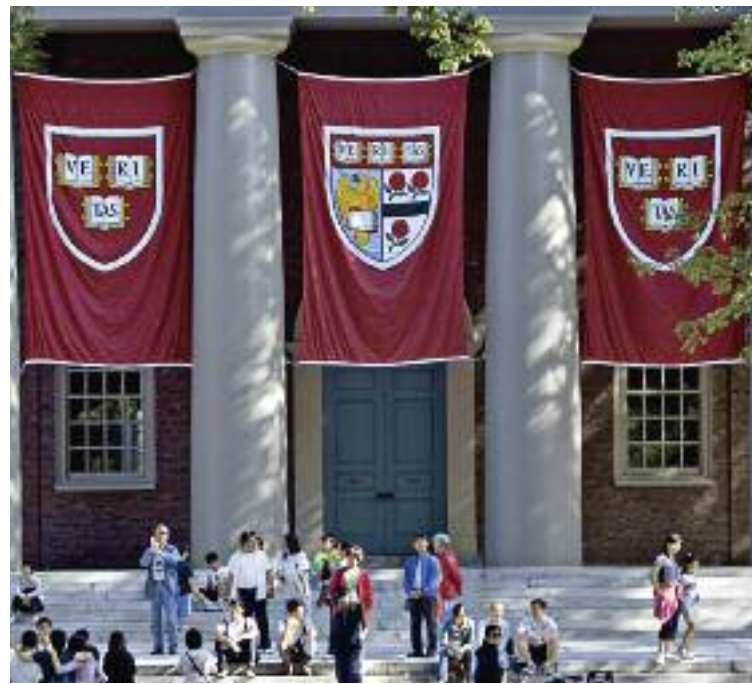
이는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발언들과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관념에 논쟁이 격화되면서 불거진 문제다. 보수측에서는 DEI를 사회를 억압자와

핍박을 받는 측으로 이분화해 반유대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측에서는 이것은 DEI를 너무 적은 의미로 한정하는 것이며 인종과 성별에 더해 다양성, 사회경제적 상황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릴 기브랜 무하마드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역사학자는 하버드 인문과학대의 결정을 공화당 정치인들과 기부자들의 압력에 광범위한 굴복의 한 부분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다양성 진술서를 폐지하는 것은 DEI를 지지하는 후보자들의 하버드 교수직에 대한 지원을 단념케 할 것이라고 봤다.

사실상 다양성 진술서는 많은 보수적인 성향의 교수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에릭 매스킨 하버드의 경제 및 수학과 교수는 “많은 보수적인 뛰어난 교수들도 역시 소수인종들과 마찬가지로 잘 주목을 받지 못하며 특정한 그룹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아이디어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양성 진술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학의 반 유대주의에 관한 의회 청문회에서 버지니아 파스



의원은 DEI를 “급진적 좌파의 인종차별에 근거한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대니얼 앨런 하버드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의 오피니언란에 그가 옳다고 찬성했었다.

하버드대학의 구성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 하버드 학부 및 대학원 전문 대학원을 총 망라하는 기관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하버드 법대, 의과대, 경영대

, 신학대, 교육대 등이 포함된다.

하버드 칼리지(Harvard College) - 하버드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하버드 학부를 지칭한다.

인문과학대학(Faculty of Arts and Sciences, FAS) 하버드 대학의 일부로서 하버드 학부와 인문과학대학원(GSAS), 엔지니어링 및 응용과학 대학원(SEAS), 그리고 평생교육원이 포함된다.

hsb@bostonkorea.com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제29회 밀알 동부 사랑의 캠프 등록 받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주밀알선교단 연합으로 주최하는 제 29회 동부 사랑의 캠프가 뉴저지 프린스턴에 위치한 하얏트 리전시 호텔(Hyatt Regency Hotel)에서 7월 18일(목)~20일(토)까지 열린다. 너는 내것이라(You are Mine!)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성인들이 참가하는 <믿음 캠프>는 이재서 총재와 유광철 목사(제자교회)가 주강사로 나서 한국어로, <사랑캠프>는 이승민 목사(캐롤라이나 밀알단장)가 주강사로 나서 영어로 진행된다.

믿음캠프는 첫날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각 지단 소개, 찬양집회와 레크리에이션으로 막을 열게 된다. 사랑캠프는 어린 장애아동들과 유스 그룹이 주를 이루기에 보다 역동적인 율동과 찬양으로 엮어간다. 둘째 날 오후 사랑 캠프에서는 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믿음캠프는 예년처럼 이 · 미용, 한방진료, 세족봉사, 네일, 무료 가족사진 촬영 시간이 준비되어 모처럼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채로운 부스를 돌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저녁에는 <한여름밤의 특별음악회>가 열리며 장애가

족들이 만나 서로를 보듬어주며 위로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이번 사랑 캠프숙소 등록 마감은 6월 15일 토요일 밤 12시까지이다. 참가 신청은 603-553-6955으로 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9명 등록이 가능하며 선착순이 마감되면 대기자 명단에 올리게 된다. 행사장까지는 15인승 밴으로 이동한다. 숙박에 필요한 정보는 영어이름과 주소이며, 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한글이름과 나이(혹은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그리고 장애인, 장애인 가족, 봉사자 여부이며, 보호자 연락처다.

보스톤뉴호프 아카데미, 영어, 수학, 한국어 여름학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 내 서머캠프의 단점을 보완해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는 여름학교가 올해 8월 열린다. 보스톤 뉴호프 아카데미는 <서머퀘스트> 여름 학교를 8월 5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1학년부터 8학년 학생들로, 수학과 영어 심화학습 및 한국어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배운다.

이 여름학교는 지루한 문제집을 푸는 식의 공부가 아닌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영어 글쓰기(writing)와 수학에 접근하는 클래스를 각 학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학생들(5~8학년)은 Debate(토론)을 배울 예정인데, 이 클래스를 통해 리서치, 읽기와 쓰기, 말하기, 듣기는 물론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모 대학의 디베이트팀 디렉터가 디베이트 반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아카데미 측은 밝혔다.

매일 단체 놀이 시간(Group Activities)이 있고, 금요일에는 현장 학습(Field Trip)도 있다. 매

주 수요일에는 예배(Chapel)가 준비될 예정이다. 경험이 풍부한 현 사립/공립 교사들이 반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학교는 여름방학이 다가오면 서머캠프 준비로 분주한 엄마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학교로, 베드포드에 위치한 보스톤 성결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주최하는 보스톤 뉴호프 아카데미는 교육을 통해 지역과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는 마음을 모아 만든 비영리 단체이다.

이번 캠프 관련 오픈 하우스(Open House)가 6월 29일 오후 4시에 보스톤 성결교회에서 진행된다. 수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선착순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등록은 www.bostonsummerquest.com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이 단체는 고등학생, 대학생 자원봉사자(volunteers)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은 www.bostonsummerquest.com 통해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신문을 독자여러분 집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디지털 신문 이메일을 여러분 집에 격주로 배달해드립니다.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태블릿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신문 전 페이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기사를 원하시면 바로 클릭만 하시면 PDF 지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보고 싶으시면 위의 + 버튼을 눌러 주세요. 줄이고 싶으시면 -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4년도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 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회장 남일, 이사장 오인식)는 5월 25일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보스턴장로 교회 한국학교,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북 부보스턴 한국학교, 애머스트 한국학교와 개인 자격 참가자 등 뉴잉글랜드지역의 5개 한국학교 학생과 개인 참가자 약 80명이 참가해 각자의 그림 실력을 겨루었다.

이번 대회의 심사는 강승연, 김민희 교사(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한은경 교사(보스턴 장로교회 한국학교), 박윤재 교사(보스턴천 주교 한국학교) 등 미술 전공 교사들이 맡았다.

협의회 손연주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협의회 강상철 부회장은 “오늘 주어진 그림 주제를 잘 생각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도화지 위에 멋지게

표현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을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정설 교육간사의 진행으로 주제 추첨이 이루어졌다. 주제는 작년과 같이 각 학년별로 추천된 제목들 중에서 각 학년의 감독위원이 한 가지를 뽑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기차’, ‘바다’, ‘좋아하는 동물’, ‘내가 좋아하는 운동’, ‘상상의 동물’, ‘우리 가족’, ‘행복한 추억’ 등 대부분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화폭에 옮기기 쉬운 제목들로 주어졌다.

이번 대회 시상식은 프리스쿨부터 12학년 이상까지 9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학년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 수여되었고 프리스쿨 및 프리킨더 학년의 경우 예년과 같이 참가한 모든 어린이에게 트로피와 상장을 수여했다.

한편, 협의회 임원단에서는 심사 시간 동안



5월 25일 오크힐미들스쿨에서 열린 사생대회에서 강상철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회장이 상을 시상하고 있다

안 학생들은 ‘신라 금관 만들기’, ‘전통 부채 꾸미기’와 ‘큰 그림 그리기’ 활동 교실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뉴잉글랜드협의회의 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에게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한 후 행사를 마쳤다.

뉴잉글랜드협의회의 오는 6월 15일에 정기 이사회 및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 후 회기를 마치게 되며, 오는 9월 초에 2024-2025 회기년도 첫 행사로 가을 정기 교사 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대상작품 8면, 10면



2024 학년도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사생대회 수상자

주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



전체대상	이준호*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0학년)			그림 주제: 내가 좋아하는 운동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상	
Kinder	김보민(보스턴천주교)	모태민(뉴잉글랜드)	최희영(뉴잉글랜드) 박인우(보스턴천주교)	김로이(보스턴천주교) 박혜민(보스턴천주교)	김성진(뉴잉글랜드) 홍지우(뉴잉글랜드)	
1학년	김윤성(뉴잉글랜드)	이시준(보스턴장로교회) 이지우(보스턴천주교)	김리안(뉴잉글랜드) 이은유(보스턴장로교회)	케이(개인참가) 김이나(뉴잉글랜드)	김준우 최이현(뉴잉글랜드) 구현 및 이재준 김이나(보스턴천주교)	
2학년	조유나(뉴잉글랜드)	박미은(뉴잉글랜드)	박지율(뉴잉글랜드) 김보현(보스턴천주교) 최재희(북부보스턴)	김하영(보스턴장로교회)	이소은 강지우 최정아(뉴잉글랜드)	
3학년	홍지연(개인참가)	김이안(뉴잉글랜드) 노다 해리(뉴잉글랜드)	최소은(뉴잉글랜드) 이혜은(보스턴장로교회)	구도윤(보스턴장로교회) 박하민(애머스트)	황 줄 조준(뉴잉글랜드) 조의영(보스턴장로교회) 이시은 김보성(보스턴천주교)	
4학년	과 휘(뉴잉글랜드)	박지율(뉴잉글랜드) 김은영(보스턴장로교회)	김채영(뉴잉글랜드) 손선재(애머스트)	조해나(뉴잉글랜드) 박보민(보스턴장로교회)	박소윤(개인참가) 근혜 피스(뉴잉글랜드) 이여나(보스턴천주교)	
5학년	권라희(보스턴장로교회)	신하민(뉴잉글랜드)	최서연(개인참가)	김승연(뉴잉글랜드)	손여향(뉴잉글랜드)	
6~8학년		조혜성(뉴잉글랜드) 박아름(보스턴장로교회)	김도윤(개인참가) 장 권(뉴잉글랜드)			
9~12학년	서가을(보스턴천주교) 권영라(뉴잉글랜드)	김서경(개인참가)				
PreSchool & Pre-Kinder (모든 참가자 입선상 시상)	정유진 최하은 미규 하연수 모태민 (이상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박혜민 노이안 심서아 이신우 이태오 (이상 보스턴천주교 한국학교)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좋은 치과, 좋은 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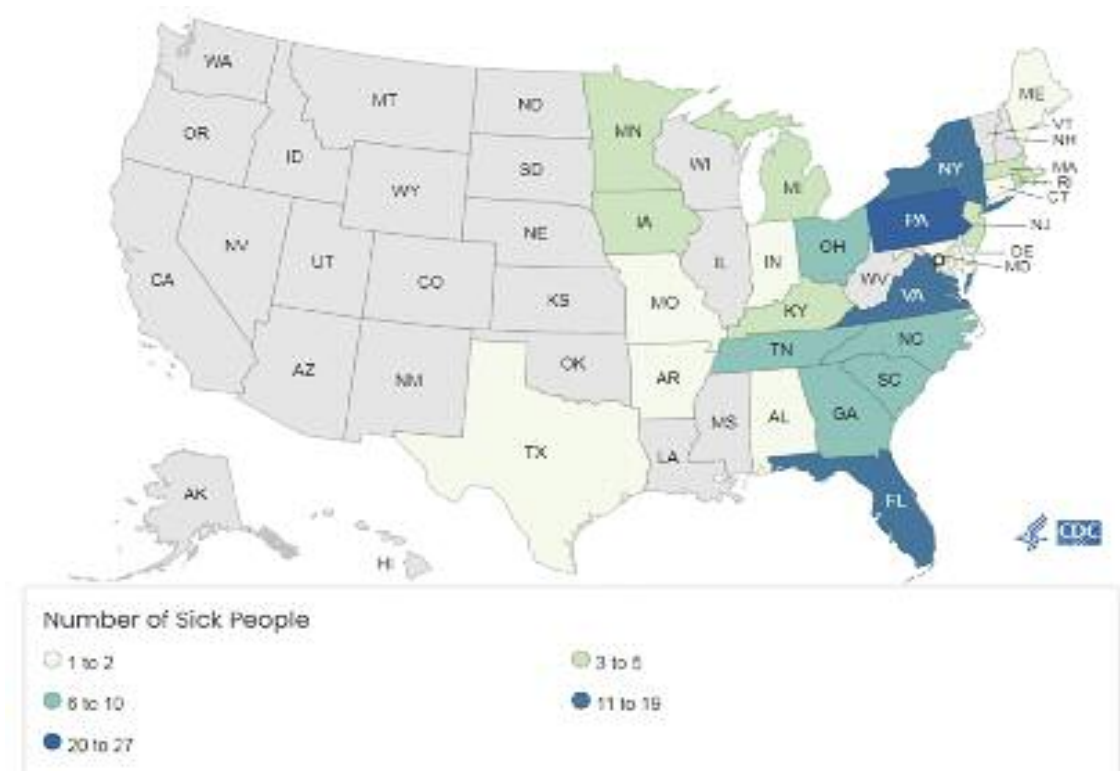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25개주 휩쓴 살모넬라 발병 원인, 오이로 밝혀져

매사추세츠 5명 발병, 로드아일랜드 4명 발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질병통제센터(CDC)는 6일 리콜된 오이가 25개 주에서 200여 명에게 살모넬라균 발병을 일으켰던 주범이라고 밝혔다. 현재 50여 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다.

오이 생산업체 프레쉬스타트(Fresh Start Produce Sales Inc.)는 지난 5월 말 출하했던 오이가 미국 상당수의 주에 배송되었다며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리콜은 펜실베이니아 농무부가 해당 회사 오이를 테스트한 결과, 살모넬라 균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FDA는

현재 발병하고 있는 살모넬라의 샘플을 조사하고 있다.

CDC에 따르면, 이 오이는 매사추세츠에서 5명을 비롯해 25개주에서 살모넬라 발병을 일으키고 있다. 로드아일랜드에서도 4명이 발병을 일으켰으며, 특히 펜실베이니아(27명), 뉴욕(19명), 플로리다(18명), 그리고 버지니아(17명) 등지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프레쉬스타트 측은 “불행하게도 우리는 특정 지역에 배송하지 않고 출하 센터에 배송하기에 어디에 배송되었는지 모른다”며 “소비자들은 구입처에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오이는 5에서 9인치의 크기이며 1.5에서 2인치 지름이다. 따라서 오이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최초 생산처와 리콜 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CDC는 이 회사의 오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먹어서는 안되며 소매상들은 이 제품을 팔아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프레쉬스타트 측은 “오이는 약 10-12일 정도 판매유효기간이며 문제의 오이가 배송된지 13일이 지났다. 따라서 판매되거나 구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문제의 제품을 소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한인들, 추가주거공간(ADU) 건축 바람 대비해야

▶▶1면에 이어서

차 공간, 가족 및 친척만 거주 가능 등의 제한을 제거하게 된다.

그러나 주정부는 각 타운에도 합리적인 자율권을 부여해 집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공간을 띄어 두고 건축해야 하는 셋백(set-back) 또는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숙박 금지 등의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ADU는 일반적인 단독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해 렌트비도 저렴해질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기

에 가장 단시일안에 주택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 한인 건축업체에 문의한 결과 현재 일반적인 건축단가는 스퀘어 피트당 \$100-\$250 정도다. 특히 보스톤의 경우 허가 비용이 높아 더 비싼 경향이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좀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900스퀘어피트 ADU 건축에 약 9만달러에서 22만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ADU를 허용하는 주처럼 일부 주택 관련 비영리 단체들이 ADU 건축관련 상담은 물론 간소화된 신청 자금대출까지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집소유

주들의 건축을 도울 것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 매사추세츠에서도 ADU건축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재택근무가 많아진 지금 ADU를 건축해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렌트로 활용할 수도 있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ADU가 허용된 캘리포니아의 경우 ADU 건축붐이 일고 있다. 통계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해 LA의 ADU 건축 허가 건수는 7,513건으로, 사상 최대치였던 재작년의 7,474건을 넘어섰다. 2019년의 5,673건과 비교하면 4년간 32% 늘어난 수치이며, 2017년의 2,347건과 비교하면 6년간 세배로 뛴 것이다.

LA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인 사회에서도 ADU건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으며 ADU 건축을 시도하는 한인들도 많아졌다.

매사추세츠 상원의 ADU 통과 여부를 주목해서 봐야겠지만 동시에 현재 집을 구매하는 한인들은 충분한 뒤뜰(Back Yard)이 확보된 집인지, 차고나 증축할만한 창고또는 건물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팝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여름대비! 서서하는 전신 다이어트 운동



최근 유 구독자들로부터, 매트 없이 따라할 수 있는 복근 운동 영상 요청을 꽤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야외 혹은 매트가 없는 상황에서도 부담없이 운동하기 좋은 코어 운동과 하체 운동 위주로 그것도 7분으로 짧고 임팩트 있게 시퀀스를 구성해봤어요. 웃도 얹어지고 아랫배, 옆구리, 허벅지 살 빼고 싶으신 분들, 바로 따라해주세요. 주 5회 추천합니다!!!!

오늘 배울 동작은 제 영어 유튜브채널 'yogasonghayeon' 의 최근 영상을 따라해보시고, 설명과 함께 따라하시고 싶다면 제 한국어 영상, '요가워어주는 여자 hayeon'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High Knee : 윗업 워킹

1단계 선 자세에서 가볍게 무릎을 접어 엉덩이 높이까지 올려줍니다.

2단계 제자리에서 걷는다고 상상하고 좌우 무릎을 바꿔가며 걸어주시면 돼요.



3단계 무릎을 올릴때마다 복부를 수축하는 것 잊지 마세요.

4단계 쉬운 동작이니 생각날때마다 1분 이상 매일 꾸준히 제자리 걸음 해보세요.

TIP! 허리를 펴고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걸어주세요.

2. Oblique Crunch : 아랫배 운동

1단계 앞의 동작에서 한가지 더 추가! 팔꿈치를 반대쪽 무릎에 가져갑니다.

2단계 척추를 트위스트하면서 자연스레 옆구리에 자극이 오는걸 느껴보세요.

3단계 35초가 너무 짧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1분 이상 진행하셔도 좋아요.

TIP! 옆구리, 뱃살 접히는게 당연합니다. 살짝 불편하신 분들도 운동이 되고 있는 거니 꾸준히 해보세요. 허리건강에도 좋아 데일리 유산소 운동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3. Side Crunch : 옆구리살 제거, 옆라인 슬림하게 만드는 운동

1단계 선 자세에서 한 팔꿈치를 구부려 한 손은 머리 뒤쪽으로 가져갑니다.

2단계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천정으로 올리고 반대 손은 바닥을 향해 내려 줍니다. 3단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무릎을 올려 팔꿈치와 무릎을 만나게 터치해줍니다.

4단계 좌우 각각 35초씩 반복해주세요.

TIP! 옆구리의 자극에 집중하며 해주되, 웨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덤벨이나 플레이트, 물병등을 들고 하시면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4. Squat + Heel Raise : 하체 토닝, 발목 강화

1단계 기본적인 스쿼트 자세에서 발꿈치를 올려 중심을 잡는 동작까지 진행합니다.

2단계 내쉬는 숨에 발꿈치를 높게 올려 중심을 잡아줍니다.

3단계 스쿼트 시에는 무릎이 과도하게 앞

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보냅니다.

4단계 영상을 참고해 스플릿 스쿼트 자세까지 하고 쿨다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해주세요.

TIP! 하체 운동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매일 10개 이상 꾸준히 하면 코어 강화 효과는 물론, 다리도 더 건강하고 날씬해질 거예요.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전 세계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TALK YOGAFULNESSLIFE

@YOGASONG_HAYEON

CONNECT@YOGAFULNESS.LIFE

WWW.YOGAFULNESS.LIFE



전체대상 10학년 이준호(뉴잉글랜드)



9학년 대상-서기을(보스톤 천주교)



12학년 대상-권영라(뉴잉글랜드)

2024 사생대회 (NAKS-NE) 대상 수상작품



5학년 대상-권라희(보스톤 장로교회)



12학년 대상 권영라(뉴잉글랜드) 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성 안토니오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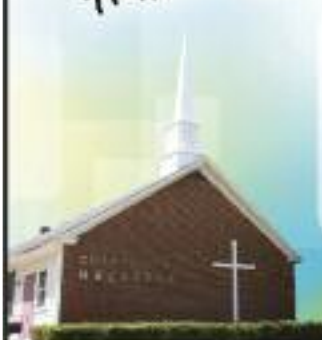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번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yahoo.com



I've helped 410+ clients find their place in Greater Boston

부동산 전문가,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FINANCIAL FREEDOM)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모든 상담을 해 드립니다.

실력, 열정 그리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더욱 풍성한 2024년 새해가 되도록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Awards/Honors:

- 2022, 2023 Boston Magazine Top Real Estate Producers
- Achieved top-ranked (#1) solo agent status at Compass Cambridge Office, demonstrating top performance in sales and client satisfaction
- Wall Street Journal America's Best Real Estate Professional List
- Hosted the Boston episode of 'The American Dream', a national TV show, highlighting Boston's real estate, and lifestyle to a nationwide audience

COMPASS

Achieved in 2023

\$25M+

TOTAL SALES

40+

TOTAL # OF TRANSACTIONS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한국계 첫 美상원의원 도전 앤디김, 뉴저지주 민주 후보로 확정

민주 우세지역이어서 본선도 일단 유리...무소속 출마 강행 현역의원이 '변수'...金, 놀라운 승리 결과 감사...州 정치 영원히 바꾼 풀뿌리운동 만들어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4일(현지시간) 뉴저지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시민단체 활동가 로런스 햄, 노동운동 지도자 파트리샤 캄포스-메디나 후보를 제치고 오는 11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고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개표 초반 로이터 통신은 선거조사가 에디슨 리서치를 인용, 김 후보가 80.5%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현역 의원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뉴저지주 사업가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후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오는 11월5일 본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 진출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된다.

김 의원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의원 3선 고지에 오른 한국계 정치인이다.

김 의원은 투표 종료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놀라운 승리 결과에 감사드립니다"며 "우리는 지난 8개월 동안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불공정한 투표용지 관행을 무너뜨리고 뉴저지 정치를

영원히 바꿔놓은 놀랍도록 강력한 풀뿌리 운동을 만들어냈다"며 "이제 변화를 위한 우리의 운동을 이어갈 준비가 됐다"라고 기대했다.

이날 선거는 유력 경쟁 후보였던 태미 머피 후보가 자진사퇴한 상황에서 치러져 김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무난하게 선출될 것으로 일찌감치 예견돼왔다.

미 연방선거위원회(FEC) 공시에 따르면 캄포스-메디나 후보의 선거모금액은 43만달러, 햄 후보의 모금액은 25만달러로, 김 의원(78만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부터 지역별 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투표용지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일렬로 모아 놓는 이른바 '카운티 라인 시스템'을 폐지한 것도 김 의원의 위위에 무게를 더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카운티 라인 투표용지가 비민주적이고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은 카운티 라인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의 유력 경쟁 후보였던 태미 머피 후보는 지역별 당 지도부의 지지를 대거 얻어냈지만, 남편인 필 머피 주지사의 후광 덕이라는 논란 속에 지지율 정체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지난 3월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날 예비선거 승리로 김 의원은 오는 11월 본선에서 승리해 연방 상원에 입성할 첫 관문을 넘었다.

뉴저지주는 1972년 이후 50여년 간 치러진 상원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도전하는 앤디 김 의원

후보가 내리 의석을 석권해왔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본선 대결에서도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메넨데스 현 의원이 11월 본선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표 일부를 잠식할 것으로 예상돼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메넨데스 의원은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기초 후 당내에서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현재까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이 현재 한 달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중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4월 구인건수 806만건...전월대비 30만건 감소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4월 들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4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4월 구인 건수는 806만9천건으로 전월 대비 29만6천건 줄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840만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2022년 3월 1천200만명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700만건대 언저리였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둔화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초과수요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 추이를 눈여겨보고 있다.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나는 꽃중년 라섹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좋은사람들
www.huram.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경합주 조지아주 '트럼프 평결 인정' 50% vs '인정못해' 44%

퀴니피엑대 여론조사...조지아주 대선 개입 재판은 무기 연기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11월 미국 대선의 향배를 가를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조지아주 유권자의 절반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유죄 평결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퀴니피엑대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나온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조지아주 등록 유권자 1천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과 관련한 34개 혐의에 모두 유죄를 결정한 배심원단 평결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전체의 44%로 집계됐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가 평결에 동의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의 86%는 평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52%가 인정하는 반면 42%는 평결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 평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투표 의향에 변화가 발생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4%가 변화가 없다고 밝혔고, 더 지지할 것이라 답변이 23%였다. 지지 의향이 줄

어 들 것이라 답변은 22%였다. '오늘 대선이 치러질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의 지지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44%)을 앞섰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한 다자 대결시에도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 43%, 바이든 대통령 37%, 케네디 주니어 8%로 나타났다. 한편 조지아주 항소 법원은 이날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의 자격 박탈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선거 개입 사건 재판 중단을 명령했다. 조지아주의 대선 개입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션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번 명령으로 이미 연기 상태인 재판이 11월 대선 이전 열릴 가능성은 한층 더 희박해졌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kyunghee@yna.co.kr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뉴욕시 도심 혼잡통행료 2만원 징수계획 무기한 중단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미국 뉴욕시가 맨해튼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려 했던 혼잡통행료 징수 계획을 무기한 보류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혼잡통행료 징수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단하라고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호컬 주지사는 "환경이 변화했고 우리는 5년 전 결정된 수사(修辭)가

아닌 현장에 기반한 사실에 대응해야 한다"며 "계획된 혼잡통행료를 시행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뉴욕 시민들에게 너무 많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해보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15달러(약 2만원)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서민층이나 중산층 가계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고금리 압박 속에서 서민층과 중산층 뉴욕 시민들에게 추

가로 부담을 주거나 회복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만들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시는 맨해튼 중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을 상대로 15달러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마련된 재원은 노후화된 지하철 노선을 보수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 확장 등에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밖에서 밥 먹기 힘들네...외식 물가 상승률 3년째 평균 웃돌아

2021년 6월부터 36개월 연속 지속...지난달에도 물가 내린 외식품목 '전무'
가공식품은 넉 달 연속 평균치 밑돌아...물가 오름폭 두 달 연속 확대
식용유 물가 4.3%→15.2% '깡충'...간장·참기름·고추장·된장도 상승 폭 커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 3년 동안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최근 넉 달 연속 평균치를 밑돌았지만,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식용유와 간장, 참기름, 고추장, 된장 등 기초 재료 상승 폭이 컸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치

(2.7%)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이로써 외식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돈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6개월 연속 이어졌다.

지난 3년 동안 외식 물가 부담이 다른 품목들에 비해 그만큼 더 컸다는 얘기다.

외식 제품 품목 39개 중 절반이 넘는 23개 물가 상승률이 평균을 웃돌았고 물가가 내린 품목은 없었다.

떡볶이가 5.4%로 가장 높고 도시

락(5.3%), 김밥(5.2%), 비빔밥(5.2%), 칼국수(4.3%), 쌀국수(4.2%), 김치찌개 백반(4.1%), 구내식당 식사비(4.0%) 등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인 '참가격'을 보면 지난 4월 서울 지역 김밥 가격은 평균 3천362원으로 3년 전(2천692원)보다 24.9% 올랐다. 비빔밥은 같은 기간 8천846원에서 1만769원으로 21.7% 상승했다.

칼국수는 7천462원에서 9천154원으로 22.7%, 김치찌개백반은 6천769

원에서 8천115원으로 19.9% 각각 올랐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8.7%로 전체 평균치의 3.2배에 달했고 그중에서도 과실은 38.9%로 14.6배였다. 배는 126.3%, 사과와 80.4%, 양배추는 56.1% 등이었다. 반면 가공식품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26개월째 전체 평균을 웃돌았으나 2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평균을 밑돌았다.

가공식품 세부 품목 73개 중 27개가 전체 평균을 웃돌았고 나머지 46개는 밑돌았다. 특히 19개는 물가가 오히려 내렸다.

설탕이 20.4%로 가장 높고 소금

(16.4%), 식용유(15.2%), 고추장(9.7%), 양주(9.5%), 건강기능식품(8.7%), 맛김(8.1%), 아이스크림(6.1%), 우유(6.0%)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라면은 5.2% 내렸고 어묵(-5.0%), 김치(-4.1%), 소시지(-3.7%), 분유(-2.6%), 스낵과자(-2.1%) 등도 물가가 내렸다.

그러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3.2%에서 2월 1.9%, 3월 1.4% 등으로 둔화세를 보이다가 4월 1.6%, 지난달 2.0%로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식용유 물가 상승률은 15.2%로 전달(4.3%)의 3.5배를 넘고 같은 기간 간장 물가는 -2.2%에서 3.3%로 플러스(+)로 전환했다. 참기름도 4월 -0.6%에서 지난달 3.8%로 오름폭이 커졌다.

또 고추장은 6.0%에서 9.7%로, 된장은 -1.7%에서 1.3%로 각각 상승 폭이 커졌다.

2분기 들어 올리브유, 간장, 참기름, 조미김 등 가공식품과 김밥, 치킨, 피자, 햄버거 등의 외식 메뉴 가격이 줄줄이 올라 먹거리 물가 상승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소비자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외식과 가공식품 부담이 가중되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고, 1분기 호실적을 낸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kaka@yna.co.kr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7개 분기째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며 소비자 부담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404만6천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2.8배, 가공식품은 2.2%로 1.6배 높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거리에 놓인 음식점들의 메뉴 홍보물.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JUNE 7th - JUNE 13th, 2024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CHEESY SOTTEOK FUN

This upgraded take on sotteok, or rice cake and sausage skewers, is an easy K-street food to make at home. 그냥 먹어도 맛있는 소떡소떡에 모짜렐라 치즈를 더해 업그레이드된 소떡치를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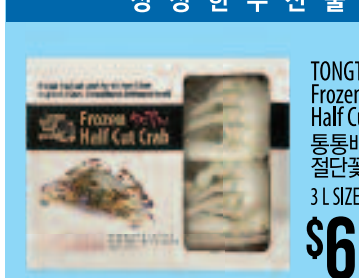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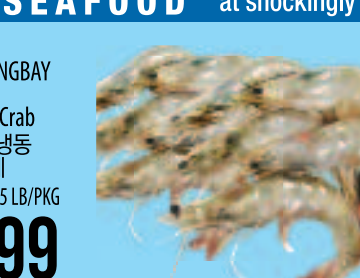


 Sweet Potato 고구마 10 LB/BOX \$17.99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Sand Pear 샌드 배 LB \$2.99	 Kabocha 단호박 LB \$0.9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Red Cherry 레드 체리 LB \$4.99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Ginger 생강 LB \$2.99	 Tommy Mango 타미 망고 BOX \$9.99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3.99

신 선 한 정 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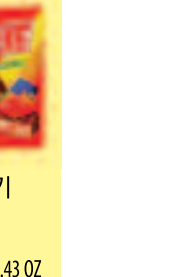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Fresh Bone-in Beef Shank 생 뼈있는 소 아롱사태 LB \$7.99
 Fresh Pork CT Butt 생 돼지목살 (수육용) CHUNK/LB \$5.99	 Fresh Boneless Chicken Breast 생 뼈없는 닭가슴살 LB \$3.99
 Frozen Smoked Duck 냉동 훈제오리 SLICED/LB \$19.99	 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8.99

싱 싱 한 수 산 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Frozen Half Cut Crab 통통배 냉동 절단꽃게 3 L SIZE/1.5 LB/PKG \$6.99	 Premium Head-on Shrimp 프리미엄 머리새우 30-40'S/LB \$4.99
 TONGTONGBAY Spicy Dried Squid 통통배 매운맛 오징어포 1.5 OZ/PKG \$3.49	 Frozen Squid Tube 오징어 튜브 LB \$3.99
 HAIOREUM Premium Frozen Oyster 해오름 청정생굴 8 OZ/PKG \$3.49	 Live Lobster 살아있는 랍스터 LB \$7.99

SMART CARD MEMBER ONLY

 NONGHYUP Yecheon Korean Rice 농협 예천 일품쌀 22 LB \$24.99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쌀 15 LB \$11.99
 NONGSHIM Shin Cup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컵 2.64 OZ X 6 EA/PKG \$7.99	 PULMUONE Cold Noodles with Radish Kimchi Broth 풀무원 동치미 물냉면 30.7 OZ \$4.99

 RAW NATURE Sweet Rice 자연담은 찰쌀 15 LB \$13.99	 NONGSHIM Chapagetti Jjajang Noodles 농심 짜파게티 4.5 OZ X 4 EA/PKG \$4.99	 KWANG CHEON NONGHYUP Roasted Seaweed with Green Tea 광천농협 녹차 도시락김 3.38 OZ \$10.99	 SUNG GYUNG FOOD Laver Chips 성경 김 부각 2.64 OZ \$3.99	HAIO Seasoned Bean Paste Ssam-jang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 1.1 LB \$2.99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 삼계탕 28.21 OZ \$7.99	 ROSIE'S FARM FRESH Organic Grade A Free Range Large Brown Eggs 로지스 팜 프레쉬 유기농 A등급 황란 (대) 1 DOZ/PKG \$5.99	 CHUNG JUNGWON Luncheon Meat 청정원 런치미트 12 OZ \$2.99	 ARIZONA FARM Honey Powder 아리조나 꿀 허니 파우더 1 LB \$2.99	CROWN Vic Pie Strawberry 크라운 빅파이 딸기 11.43 OZ \$4.99
 WOONGJIN Morning Rice Drink 웅진 아침햇살 50.72 FL OZ \$3.99	 WOONGJIN Green Plum Drink 웅진 초록 매실 50.72 FL OZ \$2.50	 HELLO! Electric Stainless Steel Multi Cooking Pot 헬로! 스텐 멀티 쿡킹 포트 1.2 L EA \$17.99	 LG Dr.Groot Shampoo Gift Set LG 닥터그루트 탈모증상 완화샴푸세트 (7종) SHAMPOO - 13.5 OZ X 2 EA / 1.7 OZ X 2 EA / 6.1 OZ X 1 EA LIME/JASMINE SHAMPOO - 3.4 OZ X 1 EA \$29.99	Japanese Large Bowl 일본산 큰 대접 (보그림) 18.5 CM/PAINTBRUSH \$10.99

JINGA

연근조림

SEASONED LOTUS RO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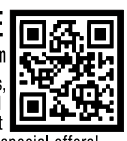
Every Body's Favorite Banchan!

\$4.99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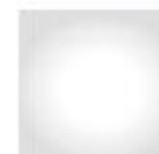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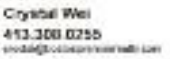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jee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thy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김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 보 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susan@bostonpremierrealty.com
--	--	---	---	---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켄리 김 978.494.2643 kellykim@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617.447.0501 niki@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박 617.780.7635 peterpark@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리 978.866.3248 jinalee@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401.538.3397 ryeunjung@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김 617.838.0787 sarahkim@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리 617.855.7710 grace.lee@bostonpremierrealty.com	 현수 김 617.558.8973 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미나 김 213.503.0387 mina@bostonpremierrealty.com	 미카 리 413.507.1402 mikalee@bostonpremierrealty.com	 선호 김 617.913.3388 sungho@bostonpremierrealty.com
 희진 김 617.877.0387 heejin@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781.838.3412 eejung@bostonpremierrealty.com	 현수 김 781.959.1214 hyeon@bostonpremierrealty.com	 하연 김 617.915.1162 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617.913.5728 eejung@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404.641.9102 eejung@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94.5810 tammywoolfolk@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952 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91.0314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e 617.936.2713 vivianye@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ang 248.449.0117 lujia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652 johntra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rrens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8.26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논란의 액트지오 대표 입국... "동해 석유' 명확히 설명하려 방한"

연합뉴스와 SNS 인터뷰도... "액트지오는 세계 최고의 회사"
"심해 저류층 탐사에 특화... 세계적 전문가들과 협업"
산업부, 오는 7일 세종청사에서 아브레우 대표 기자회견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하는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대표는 5일 "이번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에게 더 나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한국을 직접 찾았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브레우 대표는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방한 목적에 대해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발표 이후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돼 방한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한국석유공사와의 비밀 유지협약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순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언론 등 최대한 많은 분께 설명하려 노력해왔으나 하루에도 수많은 요청이 있어 석유공사와 소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석유공사로부터 조사된 광구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의뢰받았다"며 "우리가 검토한 것은 이전에 깊이 있게 분석된 적이 없고, 새로운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곧 이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다"며 공항을 떠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아브레우 대표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아브레우 대표는 방한 직전 기내에서 연합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액트지오는) 이 분야의 세계 최고 회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SNS 등에서 액트지오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는 이 업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고객사로 엑손모빌, 토탈과 같은 거대 기업과 아파치, 헤스, CNOOC(중국해양석유), 포스코, YPF(아르헨티나 국영 에너지 기업), 플러스페트를, 톨로우 등 성공적인 기업들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브레우 대표는 액트지오에 대해 "전 세계 심해 저류층 탐사에 특화된 '니치'(niche·틈새시장) 회사"라며 "전통적인 컨설팅 회사와 비교하면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광주 유망성 평가 등 자문을 위해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규모는 작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의 사업 전략은 작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라며 "건물을 소유하거나 여러 명의 부사장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수평적 구조에서 일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액트지오가 주로 심해의 석유 구조 존재를 확인하고 품질을 평가하는 일을 수행한다며 "핵심 분야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액트지오 대표 입국... "동해 석유' 명확히 설명하려 방한"(종합) - 3

그는 이 같은 사업 방식에 대해 "능력을 갖춘 석유 관련 지구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많이 있는데, 여러 국가를 원격으로 연결해 같이 프로젝트

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런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전문가가 필요한 그 순간에 실시간으로 적확하게 참여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 프로젝트의 지연이 없고 우선순위에 프로젝트 목표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사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자격 논란을 의식한 듯 "2017년부터 미국 텍사스에 등록된 액트지오의 소유주"라며 "엑손모빌에서 고위 임원으로 은퇴한 후 2015년부터 컨설턴트로 경력을 시작해 전 세계 심해 프로젝트에 관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 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면서 모든 대륙에 있는 50개 이상의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현재 미국 라이스 대학의 겸임교수이자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인 석유 지질학 관련 서적의 저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퇴직 지질 학회(SEPM) 회장 역임, 수십편의 과학 논문 인용 저자, 석유 분야 글로벌 과학회의 의장 등 이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석유 지질학자협회 초대 저명 강사로 임명돼 지난 한 해 동안 15개국에서 석유 지질학 강의를 하고 과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대통령 동해 석유·가스 개발...업계 "에너지 안보·수급 안정 기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발표에 관련 업계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업계는 석유와 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한국이 실질적 산유국 반열에 오르면 에너지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국정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

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다고 안 장관은 설명했다.

정부는 매장 예상 자원을 가스는 최소 3억2천만에서 최대 12억9천만 t, 석유는 최소 7억8천만배럴에서 최대 42억2천만배럴이 부존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한 해 석유 수입량이 10억 배럴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예상 매장량이 전 세계 원유 매장량 약 1조7천억배럴에 비추면 미약한 수준이어도 산유국 지위 확보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업계에서는 평가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원유 처리로는 세계 5위의 석유 강국인데 불행하게도 원유를 전량 외국에 수입을 의존해왔다"며 "석유·가스전이 개발되면 도입 안정성이 개선돼 원가 절감 등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 안보도 확연히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남미 가이아나가 2015년 유전 발견 이후 단숨에 석유 부국으로 부상했듯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가이아나 광구는 금세기 발견된 단일광구 최대 심해 유전으로 평가 받는다. 이곳의 발견 자원량(매장량+발견잠재자원량)이 110억배럴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가이아나처럼 국부를 쌓고 국운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석유·가스전 개발을 한국이 '원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실제 매장량과 경제성 등을 확인해야 하고 상업 개발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선부른 장밋빛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국은 지난 1998년에도 울산 앞바



다에서 가스전을 발견하고 시추 등 과정을 거쳐 큰 기대 속에 '동해 가스전' 개발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동해 가스전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약 4천500만배럴의 가스를 생산하고 가스 고갈로 문을 닫았다.

또 국내 정유업계의 경우 탐사와 시추 위주의 '업스트림'이 아닌 정제와 유통 등 '다운스트림' 중심이어서

시추 과정에 직접 참여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호재는 맞지만 아직 경제성 등 확인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쉽지는 않다"며 "일단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하니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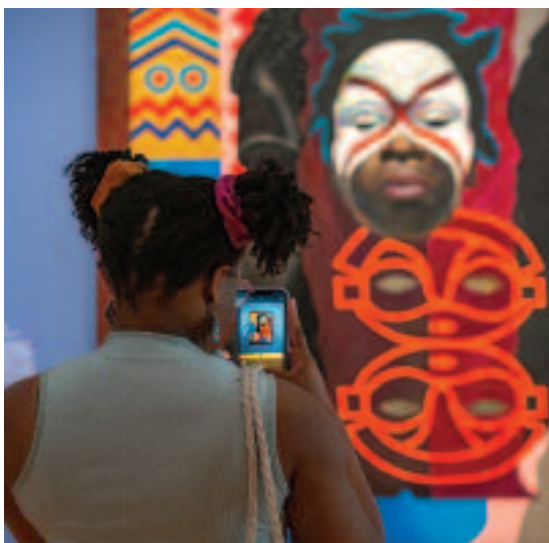
rice@yna.co.kr

▶ 6월 19일수요일 ▶ 오픈하우스 ▶ 6월 19일수요일 ▶ 오픈하우스 ▶ 6월 19

▶▶ 무료입장



노예해방일 ▶



MFA 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In partnership with

✻ Citizens®

Lois Mailou Jones, *Ubi Girl from Tai Region*, 1972. Acrylic on canvas. The Hayden Collection—Charles Henry Hayden Fund. © Lois Mailou Jones Pierre-Noel Trust.

Norval Morrisseau, *Bear Father; Bear Son*, 1989. Acrylic on canvas. The Betty Mayland Ellis Fund for Canadian Paintings. Authentication and Permission granted by the Estate of Norval Morrisseau.

▶ @mfaboston으로함께하세요 ▶ 자세한내용은 mfa.org에서 ▶ @m

탕웨이 "배우로 한 단계 성장했다 느껴...다음 모습 기대돼"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촬영 현장에서 감독님을 매우 존경해요. 게다가 전 프로 배우이고요. '노 프라블럼'(No Problem)이었습니다."

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중국 배우 탕웨이는 남편 김태웅 감독과 촬영장에서 다시 만나게 된 소감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오는 5일 개봉하는 김 감독의 영화 '원더랜드'에 출연했다. 두 사람이 한 영화에서 호흡한 건 '만추'(2011) 이후 13년 만이다. 김 감독은 '만추'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고 2014년 결혼해 딸을 뒀다.

탕웨이는 "감독님의 영화에 밴 따뜻함을 좋아한다"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도 좋아하는데, '원더랜드'가 그런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원더랜드'는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하는 영상통화 서비스인 원더랜드로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기술의 발전이 불러올 관계의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탕웨이는 "AI 소재 영화 대부분이 어둡고 폭력적인 것과 달리 '원더랜드'는 따뜻한 영화라는 관람평을 읽었다"면서 "희망과 따뜻함을 보여준다는 게 우리 영화의 강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작가는 반드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작가의 생활과 시나리오는 맞닿을 수밖에 없지요. 김 감독님은 다양한 방면에서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요 궁금하게 생기면 찾아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원더랜드'를 쓸 때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캐고 또 캐

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극 중 탕웨이는 죽음을 앞두고 어린 딸을 위해 원더랜드 서비스를 신청한 바이리역을 소화했다. 딸은 사막 한가운데서 고고학자로 일하는 가상 세계 속 엄마를 만나지만, AI로 구현된 바이리는 슬픔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탕웨이는 "바이리와 실제로 닮은 점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바이리와 달리 화가 나면 울기도 하고 소리로 지른다"며 웃었다.

그는 "감독님이 설정한 대로 완벽한 바이리가 되려고 노력했다"며 "정말 힘들었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설정의 캐릭터라 재밌게 다가왔다"고 돌아봤다.

김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2016년부터 이 작품이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본 그는 김 감독의 출연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개봉까지 총 8년간 '원더랜드'와 함께한 셈이지만, 실제로 원더랜드 서비스가 개발된다면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한다.

그는 "(가상 세계를 통해서라도 죽은 사람을 보려는 것은)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약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약효가 다 되고 스스로 치료할 에너지가 생기면 끊는 치료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7년 량차오웨이(양조위)와 함께 출연한 영화 '색, 계'로 이름을 알린 탕웨이는 이후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한층 깊어진 연기력을 뽐냈다.

특히 '만추'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2022) 등 한국 영화에서도 인상적인 연



기를 선보여 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상 등 각종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탕웨이는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며 "생활을 통해 더 지혜로워지고 관대해지고 많은 것을 포용하게 되면서 (배우로서도) 변화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제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잡아서 끌어

내 주는 감독님도 매우 중요하지요. 저의 생활과 감독님의 능력 덕에 한 걸음씩 전진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배우로서 한 단계 성장했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다음 저의 모습이 무척 기대돼요.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저 자신을 갈고닦으려고 합니다."

rambo@yna.co.kr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파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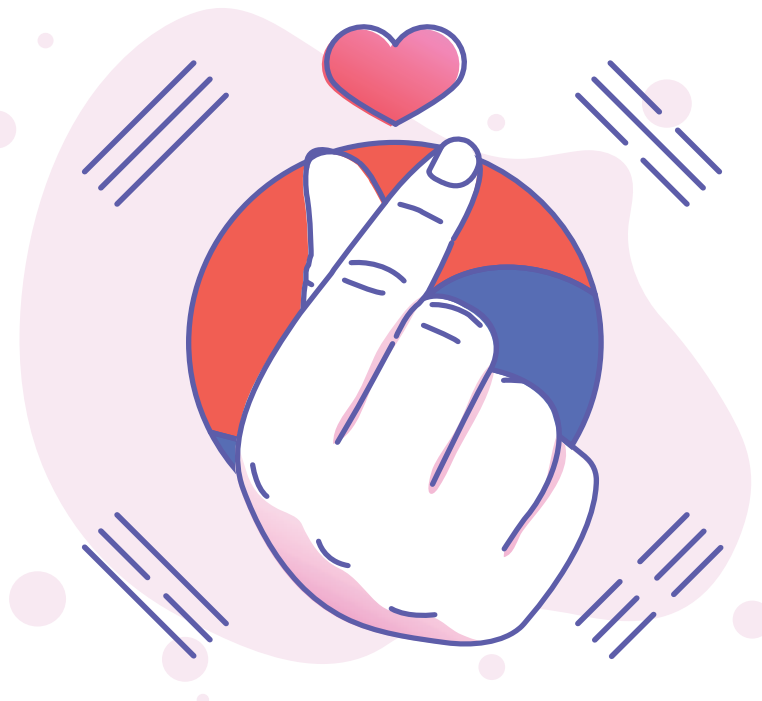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K-Culture Contest



K-pop, Dance, 전통악기 연주, 사물놀이,
농악 등 한국을 상징하는 공연예술

- * 참가 자격: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환영
- * 참가 방법: 개인이나 단체의 5~7분 가량의 공연을 e-file 로 제작하여 e-mail 로 접수(swpark@comcast.net)
- * 심사 방법: 2024년 7월 20일까지 접수된 팀 중에서 3개 팀을 선발하여, 동년 8월 18일(일), Portsmouth, NH 에 소재한 "Strawberry Banke Museum"(야외)에서 개최될 "NE BIPOC FEST" 행사장에서 결선 공연으로 우승팀 선발 (우승팀은 청중들에 의해서 선발)
- * 상금: 1등: \$1,000.00
2등(2팀): 400.00 씩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GC)
- * 문의: 박선우(603-767-1356)

주최: 뉴햄프셔 한인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92) 소셜네트워크(SNS) 투자모임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재정 칼럼을 연재하며 ‘투자자 모임’에 초청받아서 강의하곤 했다. 강의 끝 무렵에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 모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투자 모임에서 기업 선택을 다수결로 선택한다. 본인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의 종합된 선택이기에 주식 투자 결정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의 주식 가격 변동과 다수결의 결정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소수 투자자 모임이 팬데믹 기간에 소셜 네트워크(SNS) 모임으로 전환되었다. 일반 투자자는 어느 회사에 투자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고민한다. 주식투자에 지식이나 정보가 없기에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주식 정보를 얻고자 한다. 그리고 투자를 선택한 기업의 주식 가격을 수시로 확인한다. 투자한 종목이 폭락하면 소셜네트워크에서 서로 위안을 주고받으며 희망을 품어보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진다.

한 논문(Media sentiment and short

stocks performance during a systemic crisis)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소셜 미디어 토론과 단기적인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소셜 미디어 토론이 가열되면 주식 가격과 투자 위험성(Volatility)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 기업의 주식 변동이 비즈니스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단지 투자자의 감정(Emotion or Sentiments)에 의한 변화라는 뜻이다.

일반 투자자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에 의한 주식 가격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감정에 따른 주식 가격에 의해서 투자를 결정한다. 이러한 소음(Noise)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단기 가격과 변동성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투자의 현인인 워런 버핏은 "단기적인 주식시장은 지능이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인 주식시장은 근육을 쥘는 기계"라고 언급한 것이다.

주식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하는 여러 편견((Bias)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군중(Herd

Mentality) 심리에 의한 편견이다. 학창 시절에 혼자서는 규칙이나 규율에 어긋난 행동을 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라면 종종 일탈(?)을 감행한다. 친구나 친지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의 수많은 투자자와 함께 투자한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묻지마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태연자약하게 생애의 막을 내렸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의 정신적 혁명을 위하여 그의 생애를 바쳤다. 누가 그를 죽였는가. 아테네 시민 5백 명으로 구성된 민중이었다. 진리와 정의의 죽인 것이다. 민중은 사리사욕에 휩쓸리면 한심한 우충으로 전락한다. 그리고 군중 심리에 사로잡히면 인간 지능이 80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운동하러 짐(Gym)에 가면 주식에 관한 방송을 볼 수 있다.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한다. 휴게소에 모인 사람도 운동하는 도중 스마트폰으로 특정한 회사의 주식 가격을 확인하

며 통화하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다.

투자하는데 은근과 끈기가 부족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금융 시장에서의 인내는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으로 측정된다. 21세기의 첫 10년은 누적 1%의 손실로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대 10년은 연간 수익률이 13.4%, 그리고 2020년대 4년간은 11.9%로 상승했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도 하지만, 그다음 10년 후는 놀라운 수익을 창출한 것이다. 인내심과 주식시장 역사가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에게 큰 이정표를 제시한다.

주식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사람도 많고, 주식 대박 종목을 꼽아주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도 많이 있다. 금융업계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고 열심히 부추긴다. 주식 정보도 넘쳐난다. 그러나 주위에 떠도는 주식정보와 군중 심리에 의한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 매우 높다는 사실을 투자자는 잊어서 안 된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3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591년 김보리는 12세 풍월주에 오르면서 김서현을 부제로 삼았다. 서현의 부모는 김무력과 아양공주이다. 김무력은 가야에서 항복하여 신라 귀족이 된 구형왕의 아들이고, 아양공주의 부모는 진흥왕과 사도왕후이다. 김서현은 자라면서 영특하고 기품이 통달하였다. 그래서 외조모인 태상태후(사도왕후)가 무척 귀여워하였다. 사도는 서현도 하종의 문하에 속하게 하였고, 그는 전방화랑이 되었다. 585년, 미실의 동생 미생이 10세 풍월주에 올랐을 때는 보리와 함께 우방화랑이 되었다. 588년 미실의 장남 하종이 11세 풍월주에 오르면서 보리를 부제로 삼고, 서현을 우방대화랑으로 삼았다. 그리고 591년, 보리가 12세 풍월주가 되었을 때는 서현을 부제로 삼고 김용춘(제25대 진지왕 김사륜의 아들이며 제29대 무열왕 김춘추의 아버지이다)을 우방대화랑으로 삼았다. 591년 화랑도의 부제가 된 김서현은 몇 년 후 풍월주가 될 수도 있었는데 만명萬明과 사통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그 자리를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만명의 어머니 만호는 아양공주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만명과 서현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화랑도의 부제로 있던 서현의 자리를 김용춘으로 대신하도록 풍월주 보리에게 명하여 시행하였다.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현과 만명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마침내 몰래 서로 도망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를 알아차린 만호는 딸 만명을 가두고 서현을 만노萬弩(충정북도 진천군)로 내치려 했다. 만명은 탈출하여 서현과 함께 도망쳤다. 만호태후는 더욱 노하여 그들을 벌주려고 하였지만, 풍월주 보리와 장녀 만룡(아버지는 정숙태자)의 정성으로 만호의 노여움을 풀었고, 그들은 무사하게 되었다.

만명은 태수로 명받아 임지로 떠나는 김서현을 따라 만노군으로 갔다. 그리고 어느날 밤에 황금 갑옷을 입은 어린 아이가 구름을 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곧바로 임신해 20개월여 만에 아들을 낳았다. 그가 장성하여 삼한의 영웅이 된 김유신이다. 그는 태양과 같은 위용(천일지표天日之表)을 가지고 성장하였고, 이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만호태후는 그들(서현과 만명)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

김유신의 부모가 월성을 도망쳐서 멀리가 김유신을 출산하였듯, 보리의 부모 이화랑과 숙명공주도 왕궁을 버리고 출궁하여 원광과 보리를 낳았다.

화랑세기에 등장하는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3세 풍월주 모랑이 지소태후(진흥왕의 모후)의 사신으로 그녀를 섬기며 사랑을 받다가 어느날 갑자기 죽었다. 그러자 지소는 이화랑을 불러들여 사신으로 삼았다. 당시 숙명은 왕후(진흥왕의 후)였지만 - 어머니 지소의 강권으로 이부동복의 오빠인 진흥

왕과 맺어졌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 이화랑의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 골품을 초개처럼 버리고 동혈同穴(부부가 죽은 뒤에 같은 구덩이에 묻힌다는 뜻으로, 부부 사이가 극히 좋은 것을 의미한다)의 벗이 되기로 약속하고 왕궁을 월담하여 멀리 달아나 살았다. 왕과 지소태후는 진노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였다. 사도왕후와 미실의 위안과 중재로 무거운 형벌 앞에서 목숨이 털끝과 같았던 그들은 가까스로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식지 않았고, 마치 랑狼과 패狼가 서로 의지하는 것같이 서로 부둥켜 안고 두려움을 극복하였고, 결국 그들은 신국 신라의 대성인大聖人 원광대법사를 낳았다. 보리는 그들의 차자이다. 원광과 보리의 출생을 화랑세기에는 ‘진실로 하늘의 뜻이다. 성대하고 지극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보리는 596년(진흥왕18년)에 풍월주의 위치를 부제였던 김용춘에게 물려주었다. 그는 상선(전임 풍월주)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심심은 불교에 빠져 형 원광을 보좌하였다.

보리의 정처 만룡부인과 첩 후단 모두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어 남편의 뜻을 받들며 원광의 뒤를 따랐다. 만룡은 늘 같은 날 성불成佛(484)할 것을 기도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다.

보리는 정처는 만룡(부모는 정숙태자와 만호부인이다)과 아들 예원과 딸 보룡을 낳았다

. 예원은 20세 풍월주가 되었고,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의 조부이다. 보리의 딸 보룡은 21세 풍월주 김선품의 부인이 되어 장녀 자의를 낳았는데, 자의가 제30대 문무왕 김법민의 왕후가 되었다.

보리의 첩 후단(부모는 7세 풍월주 설화랑과 그의 첩 후만이다. 후만의 부모는 비대전군과 그의 첩이다)은 아들 보태, 보호와 딸 보단과 이단을 낳았다. 후일 보단은 김흠순(19세 풍월주이며, 김유신의 동생이다)의 부인이 되어 아들 일금을 낳았다. 동생 이단도 흠순의 첩이 되어 딸 셋과 아들 둘을 두었다.

화랑도의 우두머리 자리를 내려놓고 승려의 길을 택한 보리의 뒤를 이어 13세 풍월주의 위에 오른 김용춘은 제25대 진지왕 김금륜의 아들이다.

당시 미실은 약 50세 가량 되었다. 진평왕이 12세의 나이로 즉위할 때는 보명공주와 함께 좌우후로 왕에게 색도를 하였지만, 이미 진평왕도 서른의 나이에 가까와졌고, 왕은 젊은 후궁들만 찾고 있었으니 미실의 ‘책무’가 끝난지도 오래되었다.

484) 성불成佛은 깨달아 번뇌로부터 벗어나 부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작불作佛, 성도成道, 득도得道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JUNE 6th - JUNE 13th, 2024



해오름
냉면+만두

\$9.99
SET



3중택1
PICK
1 OF 3

KOREAN STYLE
COLD NOODLES
3.18 LB (4 SETS/PKG) Reg. \$8.99



DUMPLINGS
VEGETABLE/KIMCHI/FRIED
2.65 LB Reg. \$7.99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 Quincy stores

While Supplies Last

OUR BBQ PICK!

FROZEN PORK BELLY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3.99
LB **FAMILY**
PACK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Participation limited to select stores. Please verify with your local store prior to visi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스타워즈' 시리즈 출연 이정재 "제가 제다이라니, 정말 놀랐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감독님이 당신이 맡은 역할은 '마스터 솔'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제다이 역할이라는 데 정말 많이 놀랐죠."

배우 이정재의 첫 할리우드 진출작이자 스페이스 오페라 '스타워즈'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애콜라이트'(The Acolyte)가 5일 베일을 벗었다. 8부작인 '애콜라이트'는 이날 1·2부가 공개됐고, 매주 수요일 1부씩 추가로 공개된다.

5일 시사회와 기자간담회가 열린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이정재는 작품에 출연하게 된 계기와 뒷이야기 등을 털어놨다.

이정재는 맡을 역할이 뭔지 모른 채 일단 영국으로 가서 카메라 테스트를 봤다며 "카메라 테스트가 어떤 의미인지 사실 몰랐는데, 스태프에게 '당신 말고도 카메라 테스트를 받은 사람이 몇 명 더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듣고 '이게 오디션이나 마찬가지로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카메라 테스트를 보셨

다는 다른 배우 중에는 유명한 분도 있었다"며 "테스트를 마치고 귀국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 캐스팅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때 감독님이 제 역할이 마스터 솔이라는 걸 알려줬다"고 떠올렸다.

루카스필름이 제작한 '애콜라이트'는 1999년 개봉한 영화 '스타워즈: 보이지 않는 위협'보다 100년 앞선 공화국 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평화를 수호하는 제다이 기사단의 이야기를 다룬다.

공화국이 번영하던 평화의 시대에 제다이 기사들이 잇달아 살해당하는 연쇄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담았다.

이날 공개된 1·2회는 도입부 터메이(아만들라 스텐버그)가 제다이 마스터 인다라(캐리 앤 모스)를 찾아가 싸움을 벌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이 밖에도 스타워즈 세계관의 상징과도 같은 광선검 라이트세이버를 활용한 액션 장면이 등장해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정재는 비밀의 열쇠를 쥔 오

사의 옛 스승이자 제다이 기사단의 마스터 솔을 연기했다. 티저 예고편에 나오는 첫 대사가 솔의 것이었을 정도로 비중이 큰 역할로, 지혜와 신념을 겸비해 주위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는 설정이다.

특히 이정재는 작년 5월 영국에서 열린 스타워즈 팬 행사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 유럽 2023'에서 영어 연기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며 "스타워즈가 아니었으면 거절했을 것"이라고 시리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이정재는 최근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영어) 발음 교정, 끊어 읽기 이런 것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허약함이 다 닳아서 음식을 먹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공개된 1·2회에서 이정재는 능숙한 발음으로 영어 대사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정재는 이에 대해 기자간담회에서 "촬영 전 영어 선생님과 발음을 코치해주는 선생님 총 네 분에게 촬영 전 4개월 동안 매일 훈련받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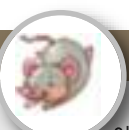
'스타워즈' 시리즈에 한국인 배우가 출연하는 것은 이번 '애콜라이트'의 이정재가 처음이다. '애콜라이트'는 이정재 외에도 아프리카계 배우 아만들라 스텐버그가

주인공인 오사와 메이 1인 2역을 맡았고, 키미 역할의 매니 재신토(필리핀계), 아니세야 역할의 조디 터너-스미스(아프리카계) 등 여러 유색인종 배우가 출연한다.

6월 9일 - 6월 15일

재미로 보는 주간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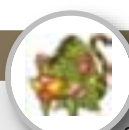
쥐띠 | 비 온 뒤에 맑게 개인 하늘처럼

● 운수: 이런저런 일로 고민하던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되어 가는 때이니 마음이 차츰 안정될 것입니다. ● 금전: 재물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착착 풀려나기 금전적인 이득도 크겠습니다. ● 애정: 비 온 뒤에 맑게 개인 하늘처럼 어려움을 헤치고 평화를 갖게 됩니다. 더욱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9, 13일 길일, 11, 14일 주의.



소띠 | 원활하게 돌아가는

● 운수: 직장에서의 일이 좋아집니다. 상사나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모두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금전: 수입과 지출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허황한 욕심이 발동하거나 과소비만 하지 않는다면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 애정: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어왔던 끈은 끊어지고 새로운 끈과 연결되게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0, 14일 길일, 12, 15일 주의.



범띠 | 능력에 맞춰서

● 운수: 변화를 주거나 이사하고 싶은 충동이 강해지는 때입니다. 능력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지나친 욕심이 도리어 손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 애정: 웬지 모르게 초조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한 번 의심이 생기면 점점 커지고 그 의심은 아무리 잊으려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1, 15일 길일, 10, 13일 주의.



토끼띠 |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 운수: 협력자가 나타나 길을 열어주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보통 때보다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교제비로 인한 지출이 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화려하게 펼쳐질 애정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의 뜨거운 애정이 불타오를 가능성이 짙은 시기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2, 15일 길일, 11, 1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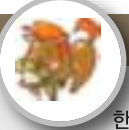
용띠 | 때를 기다리도록

● 운수: 아직은 시기가 이르니 때를 기다리도록 하세요.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도리어 일을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하니 다시 생각하세요. ● 애정: 혼자서 실망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상대가 다정다정 말 한 마디 건네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 마디를 건네보세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13, 14일 길일, 12, 15일 주의.



뱀띠 | 천천히 진행시키도록

● 운수: 정보도 수집하고 새로운 구상도 해야 하는 분주한 시기입니다.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집니다. ● 금전: 매매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익이 생기게 되니 천천히 진행시키도록 하세요. ● 애정: 이성보다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매사 동굴동굴한 처세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1, 14일 길일, 13, 15일 주의.



말띠 | 술술 잘 풀려 나가는

● 운수: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고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쉽게 일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무리가 없고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애정: 많은 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상대를 더 깊이 알게되고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2, 15일 길일, 11, 1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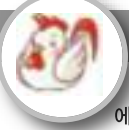
양띠 | 다음에 성사시키도록

● 운수: 동업이나 특히 친인척간에 하는 일은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 금전: 아직은 어려움이 있으니 투자는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매는 미루어서 다음에 성사시키도록 하세요. ● 애정: 화가 화를 부르고, 그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화가 넓게 퍼지면 결국 힘든 것은 자신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0, 11일 길일, 12, 1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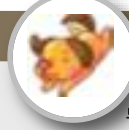
원숭이띠 |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는

● 운수: 새롭게 계획하는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세요.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고 경사가 있겠습니다. ● 금전: 일이 성사되니 그에 따른 이득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 면으로 여유가 생기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 애정: 때로는 쌀쌀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정작 본심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9, 14일 길일, 10, 12일 주의.



닭띠 | 발전에 발전을 더해 나가는

● 운수: 크게 나아지지는 않으나 보이지 않게 조금씩 발전에 발전을 더해 나갈 것입니다. ● 금전: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면 잘 풀리고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일은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애정: 누구를 짝사랑하거나 어려운 교제를 억지로 이루려 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만남을 기다려 보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9, 10일 길일, 11, 15일 주의.



개띠 | 확신을 가지고

● 운수: 무엇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조사를 철저히 한 뒤에 확신이 생긴 후에 추진하세요. ● 금전: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금문제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표정을 잘 살펴보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1, 13일 길일, 9, 12일 주의.



돼지띠 | 실생활은 소홀히 하기 쉬운

● 운수: 지금은 나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내 스승이고,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은 내 적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 금전: 포부가 너무 크면 사소한 일이나 실생활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생각 없이 지출하다가 자기 생각과 다른 결과에 부딪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애정: 자신이 옳고 상대가 그르다 하는 것을 자꾸 주장하고 싶어져도 그냥 지나가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2, 15일 길일, 10, 13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즈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옆길로 새지 않고 질주하는 스릴러... 영화 '드라이브'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유튜브 버 유나(박주현 분)는 80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다.

김치전을 만들어 먹는 걸 보여주는 '먹방'처럼 일상생활을 담은 영상으로 인기를 누린다.

유명인이 되면서 큰돈을 벌게 된 유나는 연예인처럼 소속사도 생기고 거액의 이적 제안도 받는다.

박동희 감독이 연출한 영화 '드라이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스타로 떠오른 유나가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납치되는 사건을 그린 스릴러다.

처음부터 군더더기 없이 속도감 있게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관객의 몰입을 끌어낸다. 유나가 SNS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장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옆길로 새지 않는다.

유나가 파트너 윤석(김도윤) 몰래 방송사 국장 진수(정웅인)와 이적 문제를 놓고 '밀당'을 벌이는 모습을 통해 서스펜스를 쌓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납치사건으로 들어간다.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된 채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던 유나는 납치범으로부터 이상한 제안을 받는다. 한 시간 내로 트렁크 안에서 유튜브 '라방'(라이브 방송)으로 6억5천만원을 끌어모으면 살려 주겠다는 것이다.

납치범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지도 않고 라이브 방송까지 시키는 건 이 사건에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영화는 그 비밀을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두면서 관객을 이야기로 끌어들이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 있게 끌여가는 연출력이 돋보인다.

액션 영화라고 해도 좋을 만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도 많다. 유나를 트



렁크에 가두고 질주하던 납치범이 급제동을 걸었다가 후진하면서 차들이 뺨뺨 달리는 도로를 역주행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이쉬운 부분도 없는 건 아니다. 납치범이 유나에게 제안하는 걸 본 관객은 자연스럽게 유나가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기지를 발휘할지 주목하게 되지만, 그 기대는 충족되지 못하는 느낌이다. 이는 SNS 세계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멈춘 듯한 느낌으로 남는다.

그러나 유나의 라이브 방송은 SNS의 비인간적인 단면을 드러낸다. 실시간 댓글을 다는 시청자들은 유나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철저히 구경꾼에 머무르고, 심지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를

지켜보는 걸 즐기는 듯한 인상까지 준다.

유나 역의 박주현은 행동의 제약이 큰 비좁은 트렁크에서 요동치는 내면을 표정 변화로 보여주는 연기력을 발휘한다. 카메라는 클로즈업으로 그의 표정 연기를 오롯이 담아낸다.

'드라이브'는 박 감독의 데뷔작이다. 그는 범죄 액션 영화 '특송'(2022)의 각본을 쓴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다.

데뷔작으로는 이례적으로 제41회 브뤼셀국제판타스틱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데 이어 제22회 댈러스아시안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는 등 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12일 개봉. 90분. 15세 관람가.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BTS 정국, 7일 팬송 '네버 렛 고'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팬송을 발매하고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를 향한 메시지를 전한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3일 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국이 오는 7일 디지털 싱글 '네버 렛 고'(Never Let Go)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네버 렛 고'는 아미가 주는 아낌 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는 정국의 팬송이다. 정국은 이 곡에 '맞잡은 서로의 손을 절대 놓지 말자'는 마음을 담았다.

소속사에 따르면 정국은 BTS의

공식 팬 행사 '2024 페스타' 프로그램의 일부로 신곡 발표를 기획했다. '페스타'는 BTS가 데뷔일인 6월 13일을 기념하며 팬들과 만나는 축제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군 복무를 마친 멤버 진이 직접 참석하는 오프라인 행사가 열린다. 진은 1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을 대상으로 포옹회를 열어 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현재 전역을 앞둔 진을 포함한 RM, 제이홉, 슈가, 지민, 정국, 뷔일곱 멤버 전원은 군 복무 중이다.

cjs@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평범한 것들의 가치

늘 평범한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과 가까이 있는 것들에는 당연하다는 생각에 쉬이 지나치기 쉽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자연이 되었던, 사물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일지라도 쉬이 생각하기 쉽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늘 곁에 있기에 그저 함께 머무는 가족이라고 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서로 무심함으로 대하며 그 무심함을 가족이기에 예의 갖출 필요 없는 편안한 관계라고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물론, 편안함이 있어 좋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무관심이 될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COVID로 인해 몇 년을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제약에 묶여 있었던가. 일상이 마비되어 온 가족이 가중된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한참 뛰어놀아야 할 그 나이에 집안에서 있어야 하니 답답했을 것이고, 부모는 부모대로 집안에 있는 아이들과 남편과 가족을 위해 하루 세끼 반찬 걱정을 하며 지냈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온다. 이제는 조금씩 코로

나 백신으로 마스크도 벗고 함께 식사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니 서로 조심하며 지내야겠다.

여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여행객들이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곳을 찾아 요즘 비행기 티켓을 사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 먼 곳으로의 여행도 좋을 테지만, 가까이 있는 자연들을 찾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여행이 어디 또 있을까. 햇살 좋은 날 집 포치 의자에 편안하게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가. 이름 모를 새소리들과 파도덕 거리며 뛰어다니는 다람쥐와 토끼들의 움직임이 삶의 한 풍경이 되어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에서의 특별함이란 평범한 일상에서의 누림이란 생각을 한다. 요즘처럼 사람이 그림이고 이야기가 그리운 날에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지인을 불러 바깥 포치에 깔끔한 테이블보를 깔고 간단한 음식과 와

인을 하나 곁들인다면 그 어느 레스토랑을 가지 않더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마주한 음식도 음식이지만, 함께 나누는 서로의 이야기가 더욱더 맛을 돋우는 것이라. 이처럼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특별함이란 평범함이 주는 선물인 것이다.

100세 시대에 예순에 오른 나이는 청년에 속한다며 친구는 말해온다. 그러나 예순에 올라 느끼는 내 생각은 편안한 것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 어떤 관계에서도 보채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편안하다는 생각을 거듭해보는 것이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이가 관계가 좋아졌다. 하여, 만날 수 없는 거리에 있거나, 환경이 허락지 않는다면 기다림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말이다.

삶에서 너무 특별한 것을 찾다가 보면 소소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가치를 잃기 쉽다. 가끔은 한 번씩 주변을 돌아보며 살았

으면 좋겠다. 나의 일상이 또 하나의 풍경이 되어 주변의 그 어느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이면 좋겠다. 그 상대가 누가 되었던, 오롯이 들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희망을 풀어 나눠주면 좋겠다. 언젠가 나도 그 누군가의 풍경으로 주인공이 될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무엇이든 베풀 수 있을 때 나누는 것이 복된 일임을 깨달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오늘이면 좋겠다.

하루는 24시간, 그러나 이 스물네시간은 모두에게 다르다. 평범함이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참 난감하다. 언제나 내가 쓴 안경의 색깔과 내가 켜진 잣대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결정짓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던가. 나의 평범함이 또 누군가에게는 특별함이 되기도 하고, 다른 이의 평범함이 내게 아주 특별함이 되기도 하지 않던가. 그렇다면 그 평범함을 그저 두리무실하게 말하기 쉬운 '기준치'와 '보편적'이라는 틀 속에 가두지 않기로 하자. 각자의 누리는 평범한 생각들 속에서 각자의 가치들을 꺼내 보는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뒷 모습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줄문은 옛 선비와 윤동주와 나태주 시인의 시구절을 대충 버무렸음을 밝힌다. 줄문이 삭지 않아 날것이다.

글을 읽다가 구절 하나를 발견했다. 조선중기 선비인 임매任邁라는 분의 글귀이다. 자신의 됴됨이를 자평했다.

'졸렬한 듯해도 오만하고 속 좁은 듯해도 굳은데, 게으르고 어수선한 것이 참모습이다. 문노니 어

떤 사람인가. 지금 세상에서 케케묵은 사람이라 하겠지.'

하긴 그분의 초상화를 볼적엔 강과라 보이는데 온화한 인상은 아니다. 그분의 뒷모습은 어땠을까 궁금하다.

유명가수가 무대위에서 노래할 적이다. 앞에선 화려하고 밝은 조명빛이 있다. 덕분에 가수는 관중석에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환호하는지 보고 관찰할 수는 없다. 조명은 가수의 앞모습만을 비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따금 카메라는 가수의 뒷모습을 보게도 한다.

일터에서 일이다. 새롭게 카다로그를 제작하기로 했다. 넣을 사진이 필요했기에 내 사진이 필요하다. 연출된 사진 몇장을 찍었다. 그런데, 사진사의 실수인가? 아니면 의도되었던가. 내 뒷모습도 찍혔다.

낮설었다. 앞모습 사진도 차마 보기에 민망한데 뒷모습이라니. 고개는 기울어 숙였으며, 어깨 역시 한쪽으로 빼뺏혔다. 꺾꺾한 모습은 아니었던 거다. 가엾고 초라한 뒷모습이라 해야 할터.

윤동주시인이 떠올랐다. 그의 시 자화상중 몇줄이다.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윤동주, 자화상 중에서)

뒷모습이 그 사람을 보여준다. 나태주 시인의 시구절이다.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태주, 뒷모습 중에서)

뒷모습이 어여쁘지 않을 테니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긴 틀렸다. 임매선생의 글에 내 자신을 대입한다. '오만한듯 한데, 졸렬하다. 고집이 없을 듯하다만, 굳어 속이 좁다. 어수선하며 게으르게 참 모습이다. 문노니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케케묵은 사람이라 할테지.

내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 33:23)

Shaping young minds is like discovering diamonds in the rough

1ST DIAMOND CUP GOLF CHAMPIONSHIP



DIAMOND CUP

GOLF

Monday, 1st. July 2024'
BLUE HILL COUNTRY CLUB
23 PECUNIT STREET
CANTON MA 02021

PRIZE

4 CLOSET TO THE PIN
EACH WINNER RECIVES 1 CARAT
PREMIUM QUALITY CVD DIAMOND

1ST PLACE: \$2000/ TEAM
2ND PLACE: \$1500/ TEAM
3RD PLACE: \$1000/TEAM
LONGEST DRIVE: \$215
LUNCH , DINNER AND AFTER PARTY WITH DJ

CHAMPIONSHIP TYPE
TYPE: 4 PERSON SCRAMBLE
PARTICIPANT: 144
REQUIREMENT: 18+ MALE/
FEMALE GHIN NOT REQUIRED



REGISTER NOW

US FUTURE LEADERSHIP FOUNDATION

www.usfutureleadership.org

Registration: formfacade.com/sm/tu4ab5NGY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년 내 사망률 50% 심부전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5년 내 사망률이 50%로 위험도가 높아 중증도 줄이기 위해 조기 치료가 중요한 심부전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최 원호 전문 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매일 10만 번 이상 박동하며 몸 전체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요인으로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합니다. 그 중 몸에 충분한 혈액을 전달하지 못해 생기는 심부전은 5년 생존율이 유방암과 대장암보다 낮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약 13만 3천명이었던 심부전 환자가 2022년에는 16만 6천명으로 5년 새 약 25% 증가했다. 심부전 유병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국내 심부전 환자 유병률은 60대 미만에서 약 1%지만 80대 이상 연령대는 12.6%의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발병 후 5년 내 사망률이 50%에 육박하는 심부전은 예후가 좋지 않고 중증도 인식도 낮아 주요 증상을 노화 현상이라 치부해 병을 키우는 환자가 많은 만큼 조기 진단과 치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부전은 심장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으로 상태가 나빠져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발병한다. 또한 심근경색, 고혈압 등 만성 질환과 기타 심장 질환으로 심장이 나빠지면 최종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도 불린다.

심부전이 오면 장기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손상이 발생하고 심장으로 들어오지 못한 혈액이 저류되며 발목, 다리에 부종이 생긴다. 악화되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호흡 곤란과, 밤에 누워있을 때 숨이 잘 정도로 증상이 심할 수 있다.

심부전은 고혈압과 관상동맥 질환 원인이 가장 크며 관막질환, 부정맥, 심근증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최근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 원인으로 발병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만, 고지혈증, 고혈당 등은 만성 염증 상태를 일으키고 심근과 혈관을 손상시켜 심부전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노화로 심장 기능이 나빠지며 생기기도 한다.

중증 심부전 환자는 절반이 5년 내 사망하며 25%는 1년 이내, 10%는 한 달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문제는 심부전 중증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아 병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한심부전학회가 지난 2022년 발표한 ‘2020 심부전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심부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약 84%에 달했으나, 실제 심부전이 어떤 병인지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한 사례는 51.7%에 불과했다. 또 중증도 관련, 응답자의 25%만이 위험도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

심부전은 진행성 질환으로 발견이 늦을수록 심장 기능이 나빠져 예후가 좋지 않다. 반대로 조기치료와 꾸준한 관리를 병행하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심부전이 의심되면 혈압측정, 혈액검사, 심전도 및 심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수 있고 질환에 따라 운동 부하 검사, CT, MRI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심부전은 약물치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이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로 사용되는 약물은 ACE 억제제, 베타-차단제, 이뇨제, 디지털리스 및 혈관 확장제 등이다. 상태가 중증이면 심장 이식 수술, 심장판막술, 심실 보조장치(인공심장) 이식술 등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심부전을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 혈압 조절 등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운동은 심부전 위험을 크게 줄여주므로 일주일에 3

회 이상 달리기, 자전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 심부전 환자는 하루 7~8g 이하의 소금 섭취를 권고하고 있어서 국물 섭취나 나트륨이 많은 빵, 국수는 삼가야 한다.

심부전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만성 신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빈혈 치료도 병용돼야 하며 약물 투여 후 증상이 개선되고 초음파 검사에서도 좌심실 박출률이 좋아져도 약물 치료는 필요하다.

“5년 내 사망률 50% 심부전, 중증도 줄이기 위해 조기 치료 중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회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민주평통 미주부의장배 보스턴 협의회 골프대회

장소: Cranston Country Club
69 Burlingame Road, RI 02921

시간: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오후 1:00 (샷건)

경기 방식: 투맨 베스트볼 (스크램블)

참가비: 1인 \$120, 2인 \$200, 조편성을 위해 미리 신청 부탁드립니다
(Green fee, riding cart, goody bag, buffet dinner 포함, 12시부터 당일접수 가능)

시상내역 :

1, 2, 3등 팀 트로피 및 부상

근접상: 8번 & 12번 홀

장타상: 9번 홀

다수의 특별상

One point lesson @ 12:00 PM

by 김유림 티칭 프로

Hole Sponsors Opportunity:

Diamond Sponsor: \$1,000

Gold Sponsor: \$500

Silver Sponsor: \$300

Bronze Sponsor: \$200

Friend Sponsor: \$100

다이아몬드 후원자:
강일한 미주 부의장

골드 후원자:
김동원 원장,
매사추세츠 한인회 (회장 장영수)
OKTA (회장 허은)

실버 후원자: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회장 윤평옥)
홍진섭 준비위원장

브론즈 후원자:
NE 시민협회 (회장 린다 챔피언, 이사장 양미아)
강원도민회 (회장 박형태)
국제선 (회장 김금란)
한순용 노인회 회장
NH 한인회 (회장 박선우)
박현조 미래식품 대표

프렌즈 후원자:
고려대학교 교우회
연세대학교 동창회
이기환 자문위원
김순호 자문위원
남궁연 자문위원
서울 설령탕
안태준 원장



등록 및 문의: 홍진섭: 401.481.4900, jinsuphong33@gmail.com 한문수: 617.519.4500, moon.usa@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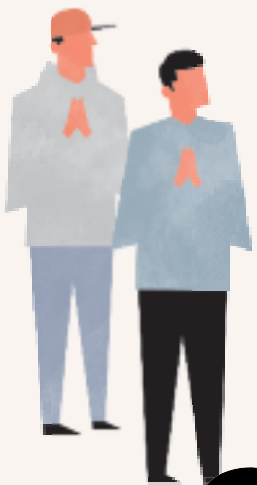
협찬: 보스턴 총영사관, 매사추세츠 한인회, NH 한인회, RI 한인회, OKTA, NE 한미시민협회, 국제선, 강원도민회, NE 연세대 동문회, NE 고려대 교우회, 서울설령탕, 보스턴 코리아, 강일한, 김동원, 홍진섭, 한순용, 박현조, 이기환, 김순호, 남궁연, 안태준, 무명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TBO play



한국방송 어떻게 보세요?

지금보시는 한국방송 서비스 보다 저렴하게!

최근 1개월치 빌을 보내주시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전미주 합법 한국방송 서비스 Since 2009



티보 플레이로 보세요!



문의전화

855-826-4636
855-TBO-INFO



2014년 파블로 카잘스 국제 콩쿨 우승자

문태국 첼로 독주회

이지영 피아노

6월 22일 (토)
저녁 7시반

Williams Hall
New England Conservatory
290 Huntington Ave
Boston, MA



PROGRAM

<i>Fauré</i>	Sonata for Cello and Piano No. 1
<i>Schumann</i>	Fantasiestücke, Op. 73
<i>Yun</i>	Nore
<i>Mendelssohn</i>	Sonata for Cello and Piano No. 2

티켓:

www.kcsboston.org

일반 \$30/ Senior \$20
학생 무료 (등록 필)





29회 사랑의 캠프



Camp Agape

주제: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이사야 43:1

2024년 7월18일(목) - 20일(토)

- 장소: Hyatt Regency Hotel, Princeton NJ
102 Carnegie Center Dr. Princeton, NJ 08540
- 강사: 믿음캠프-이재서총재, 유광철이사
사랑캠프-Pastor. Steve Lee

보스톤 밀알선교단(연락소)

참가비: \$

\$230



연락처:

603.553.6955